

남가주 교계 연합해 이단 문제 공동 대책

이단 사이버 발호에 교회와 성도들 경각심과 주의 요청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의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단체들은 공동으로 연합해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남가주 교계에서 2012년 이단 대책 공동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1시 30분에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김민섭 목사), 미주기독교 총연합회(회장 송정명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관중 목사),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회장 김성일 목사), 샌퍼난도밸리교협(회장 김원락 목사), OC교협(회장 염영민 목사), 인랜드교역자협의

회(회장 박해성 목사), 중부교역자협의회(회장 박소건 목사)가 참여했다.

주최측은 "최근 남가주에 이단과 사이버발호의 활동이 독버섯처럼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교회와 성도들의 경각심과 주

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이단대책위 분과위원장 이정현 목사는 "한 예로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한 이단은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을 동원해 마켓에서 전단을 뿌리는 등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며 자기들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나아가 '무료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남가주 교계 각 지역의 회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단과 사이버발호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계 단체장들은 남가주에 난입하고 있는 이단 단체와 관련해 각각 의견을 내놨다.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단체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판별 기준에 근거해 이단 대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기총 회장 송정명 목사는 "올해 12월 21일에 종말이 온다며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 단대책 세미나를 교계에서 연합으로 개최해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가주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는 "이단은 기독교 시작에서부터 늘 있어 왔다"며 "목회자들이 정통 신앙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OC교협 신학담당위원장 오아론 목사는 "이단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린다"며 "앞으로 또 이런 모임을 통해 교계가 보호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 6면에 계속

신년대담

2012년 한인 이민교회를 말한다



고승희 목사, 박희민 목사, 민중기 목사, 정우성 목사

2012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 난했던 2011년을 뒤로 하고, 올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발걸음도 한창 분주할 때다.

본지는 2012년 목회자들이 볼 들어야 할 목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본지 편집고문인 박희민 목사, 민중기 목사, 고승희 목사, 정우성 목사를 초청해 <2012년 한인 이민교회를 말한다>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했다. 주제는 <한인교회의 영적 리더

십과 권위 회복>이었으며 권위 실추 문제와 목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담론이 오고 갔다.

대담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교회의 권위 실추 문제가 목회자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에너지를 선교와 전도는 물론 대사회적 영향력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대담은 2시간에 걸쳐 본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2면에 계속

한기총 갈등 조장 일부 세력 명분 상실

그동안 한기총을 비판하기 위해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 명의 도용 성명까지 발표해 한기총이 마지못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선동하던 무리들의 요구가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기총이 지난해 10월 28일 개최했던 실행위원회와 관련, 최규수·조성기 목사 등 14인이 제기한 효력금지가 처분을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

루어진 운영체제,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기총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탄력을 받은 반면, 10월 28일 실행위 결의 등이 불법이라며 한기총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 일부 세력들은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류재광 기자

남가주목사회 2012년 시무예배 드려



남가주목사회가 시무식을 통해 2012년의 시작을 알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2012년 시무식과 감사예배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에서 드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대 회장은 "45대 목사회 임기를 마

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며 "조만간에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전문적인 일들을 만들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1세와 2

세 간격을 좁히고 좋은 연결 고리를 갖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배는 사회에 정중운 목사, 설교에 오도석 목사(한글예수영성사카데미 원장), 특별기도, 광고에 허귀암 총무, 축도에 임기환 목사(미주합동 총회장, 홀라이즌 신학대 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조명철 부총무가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위해, 서요한 부회장이 △각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김재울 부회장이 △미주한인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이철훈 부회장이 △조국과 민족 그리고 미국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토마스 멩 기자

→ 6면에 계속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장재효 목사 초청 집회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목회자 특별 세미나

일시 2012년 1월 23일(월) 오후 5:00
장소 JJ Grand Hotel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
문의 213-739-0403

집회 일정

- 1월 21일(주일) 오전 7시 45분 하나로커뮤니티교회(강일용 담임목사)
- 1월 23일(월) 오후 5시 JJ 그랜드 호텔
- 1월 27일(금) 오후 7시 남가주광명교회(정우성 담임목사)
- 2월 8일(수) 오후 7시 엠마오장로교회(김민섭 담임목사)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엠마오장로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남가주광명교회, 주님의교회



2012년 한인 이민교회를 말한다 <한인교회의 영적 리더십과 권위 회복>

자기 안에 갇힌 교회여! 성육신의 영성을 회복하라



박희민 목사(나성명량교회 원로)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남카주광명교회 담임)

사회 김준형 기자 2012년 한인교회를 두고 많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었지만, 이 대담에서는 특별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사회적 영적 리더십 회복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다"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인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희민 목사 신학적으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와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로 나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완전을 지향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한인교회에는 일단 한국교회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이민사회의 특성, 이중문화권이라는 성격까지 복합적으로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문제점이 한인교회의 독특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교회의 권위가 쉽게 도전받고 그 권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진실된 사명감과 섬김의 정신을 갖지 못한 목회자들이 양산되면서 성장 위주의 목회만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평신도들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목사 박 목사님의 의견에 전

적으로 동참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문제가 신학 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민 신학교들이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교파주의에 얽매어 신학교가 난립하면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목회자의 수는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들이 연합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문제가 결국 평신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교회의 영적 리더십 실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교회까지 오게 하는 데에는 열심인 내지만 막상 제자훈련과 같은 교육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이 맞닥뜨렸을 때 내공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두 분께서 목회자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고승희 목사 요즘 사람들은 가게에서 훔쳐 사고 싶어하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느냐"고 책망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끌고 가기는 커녕 오히려 끌려 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이미 자신의 모국을 한번 떠나 본 사람들이기에 교회 옮기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을 다섯번 바꾼 사마리아 여인이나 교회를 여러번 바꾸는 이민자들이나 모두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바꾼다는 말은 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참고 견디며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한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신의 필요만을

따라 이동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뤄질 수 없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 하니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섬김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목회자의 자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성취의 동기로 삼고자 하거나 열등감의 발로인 경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우성 목사 저는 최근 개척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한국식 교회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몇백명, 몇천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장이 부진한 이민교회를 대하며 동시에 목회자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민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형교회 이상은 자립해 사례비를 받으며 말씀 사역만 할 수 있게 배려를 받지만 작은 교회는 주중에 목회자가 일하고 사모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닌 삶의 현

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본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험과 자기 철학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교회에는 헌신된 교인이 부족해지고 교회 환경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양산된 목회자, 훈련받지 못한 평신도 교회 권위 더욱 추락하는 현 실태 목회자가 변화하는 세상 읽어야

사회자 교회의 권위 실추 문제는 분명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어 평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을까요?

박희민 목사 제가 70년대에 이민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목회자들이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교회들은 다 작았고 목회자가 사례비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비량으로 목회했고 아내들은 직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민교회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민 초창기에 비해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회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는 법

입니다. 갈등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위기가 되지만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고승희 목사 요즘 평신도들의 지적, 영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교회 권위 문제를 말할 때 있어서 사실 목회자의 권위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평신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 하는 비유를 들으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왜 안

맞는지를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는 것을 보면 교회 자체가 이상해 보일 수 밖에요.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대하는 시선과 수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아름다운교회는 12월에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며 은혜롭게 잘 합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마귀가 얼마나 진보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하면 진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꾸라"하면 그럴 듯하다 합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말합니다. "전도 축제"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하고 "인생 뒤집기"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을 연구하고 시대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영적 전략이 이처럼 말씀을 진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인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취업전문의 직업대학 ORT 연방정부 학력공인대학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ש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ש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번 ORT Lajolla Fairfax 맥도널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232) 966-5444 (213) 278-5927 그렉 리 (Greg Lee)

상담: 그레이스 (Grace)

기도 합니다. 하나되자는 연합의 의미인 통일이란 단어는 통일교가, 구원이란 단어는 구원교가, 안식에 대한 것은 안식교가 가져다 버렸습니다. 종말에 대해 말하면 말일성도인가 의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세상 혹은 이단에 빼앗겨 버린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놓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코드를 끊임없이 읽어내야 합니다.

박희민 목사 교회의 리더십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교회의 경우 창조적으로 목회하려는 목회자가 전체의 5% 밖에 안됩니다. 15%는 그 5%의 것을 모방해서 약간 변형시킨 후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전체의 20%는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머지 80%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평신도들은 앞서 가는데 교회와 목회자는 뒤쳐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크게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목사 저는 신학자로서 목회 현장에 뛰어 들면서 어떻게 평신도 훈련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거친 제자들이 세상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교회 내부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천국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세상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소수였으나 세상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단교회 초기에도 교회는 소수였으나 목회자들이 민중들의 삶 속에서 함께 그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되고 이단교

회도 제도화되면서 이런 모습이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를 1차적 제자와 2차적 제자로 나누어서, 1차적 제자는 교회 내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고 2차적 제자는 자기 소명에서 드러나는 제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1차이면서 동시에 2차를 모두 가진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평신도를 세상의 주연으로 키워 세상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게 해 말 아닌 삶의 모습이 권위 회복 관건

박희민 목사 저는 크리스천에게 두 개의 무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교회란 무대이며 또 하나는 사회란 무대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주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주연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주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직업이 교수인 평신도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업이 정치인이면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 사회에서 조연입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교회에서는 조연으로서 충실히 잘 훈련받고 세상에서는 주연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조용하고 교회에서는 시끄럽게 하면 교회가 갈등을 겪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회자 평신도들이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회자가 깨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갈등이 빈번한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여력이 남을까 궁금합니다.

민중기 목사 저는 교회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교회의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분출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0-40년

간 한인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에 노력해야 하는데 건물을 짓는 등 외적인 부분에만 투자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복음의 문화가 황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일을 간파했고 LA라는 우리 삶의 터전을 복음화하는 일을 놓쳐 버렸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만 기대해지니 이를 두고 교회 구성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승희 목사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이 한반도 진출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내부적 갈등을 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분출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당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것처럼 교회도 내부에 쌓이는 막대한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장성을 잃어 버립니다.

이민교회도 몇 개 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져도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불잡아 두려 하니 교회가 깨졌습니다. 싸워서 나뉘어지거나 축복하고 분리해 주거나,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결과는 같은데 그 방법과 과정은 판이합니다. 한 교회에 찬양 리더가 4명 있는데 예배는 3번뿐이라면 4명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개척해서 1명의 찬양 리더를 그곳으로 보내 주변 싸움 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사라도 휴면될 뻔했던 그 1명이 더욱 창조적으로 사역할 길이 열립니다. 개척해 주고 나눠주면 리소스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역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우성 목사 교회가 섬기고 나누어 줄 때, 성도들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섬기고 한글학교를 열어 한국어 가르쳐 주고 성인 영어학교를 열어 부모들을 섬기자 젊은 부부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같은 개척교회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평신도들은 자신이 내는 헌금 혹은 자신들이 하는 헌신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자 그러나 그런 일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듯 싶는데요?

박희민 목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건장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 사명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양육과 교육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른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 영성 하는데 결국 이 영성은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성육신의 삶입니다. 성육신의 영성이란 예수를 닮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이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권위를 회복할 뿐 아니라 본연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민중기 목사 성육신의 영성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사회를 보면 막스주의자들이 품었던 꿈이 한국의 좌파를 통해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막스주의자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옥중수고(Prison Notebooks)란 책에서 공산주의 운동에는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동전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한 나라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지전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공산주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범조인, 기업인, 정치인, 노동자를 만드는 형식으로 사회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전교조 등 전문화된 직업군 안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도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80-9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기독교 서적과 막스 서적입니다. 그런데 막스가 사회 변혁을 말할 때, 기독교는 부흥만 말했습니다. 사회가 정의를 말할 때, 기독교는 자신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와의 접촉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이민사회에도 곧 닥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 전환, 행동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말 잘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우성 목사 지도 중요한 것은 말씀

을 아는 것이지만 그에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진리의 말씀이 오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민교회의 삶 깊은 성도들이 말씀과 영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며 이렇게 목회자와 리더가 본을 보인다면 교회의 대사회적 리더십과 권위 회복도 그리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승희 목사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익숙성을 하나씩 나라의 삶으로 극복해 가는 방법은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말씀이 흠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조직적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삼권 분립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짜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 일을 수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결과와 진행 상황을 놓고 점검, 평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다스림의 원리를 교회에 잘 적용할 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 목사님께서 2012년 한인교회에 조연의 말씀을 하나 해 주신다면요.

박희민 목사 2012년 한인교회들이 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연합해야 했고 이 연합을 통해 주류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난해 로즈볼 기도회에는 한인 1만 명 이상 참석해서 미국사회와 타인종 커뮤니티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만 보지 말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크리스천 정치인, 기업인, 과학자, 의사 등을 키워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갈 이민사회에도 곧 닥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 전환, 행동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말 잘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앞선

“전월하게 웃음으로 상암에 드립니다. 부당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부채질은 목(경부)

뇌와 신경은 혈류가의 흐름을 높이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스카피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의 기적, 목디스크 예방합니다.

동상부

골은 등을 펴고, 목(학생사무원 비만예방, 임신노출, 임신, 유전, 폐근에도 좋습니다. 불면증, 두통,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일 30% GUARANTEED

Sae Arc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네이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벨리교역자협 신년하례회 드려

예배와 친교 모임으로 2012년 출발



벨리교역자협의회 회원들이 2012년을 맞이해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샌퍼난도벨리한인교회교역자 협의회가 신년하례예배를 12월 10시 30분에 에브리데이교회(최희주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12월 14일 7-9절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김원락 목사(벨리제일장로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곧 이어 “벨리 지역 목회자와 교회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공동의 운명체가 되자”고 말했다.

예배는 인도와 설교에 김원락 목사, 기도예 안영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 광고에 서종운 목사(새생명중앙교회), 축도에 김경훈 목사(은퇴, 원로목사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치고 새해 인사 및 덕담하는 시간과 탁구를 통해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마스 맹 기자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

새생명비전교회, 기독교실업인세미나 개최



기독교실업인들이 세미나를 통해 직장 복음화에 비전을 얻고 있다.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가 기독교실업인세미나를 14일 오전 7시 30분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자리에는 주로 새생명비전교회 실업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강사는 강준민 목사(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성하는 성경적 지혜-창세기 26:12-22)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 목사는 “어려울 때 더욱 잘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전략의 핵심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다. 또 전략가는 자신의 강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을 세운 후에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목사는 “기업에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지 않으셨던가”라며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분이다.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에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사랑의 휠체어 이번엔 우즈베크로 전달



미주 한인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휠체어와 의료기구가 우즈베크로 전달됐다.

미주 한인들이 불경기 속에서 또 다시 사랑을 모았다.

그동안 7천여 대에 달하는 휠체어와 3만여 개의 의료기구를 한국, 중국, 북한에 전달해 사랑을 나누는 살롬장애인선교회(회장 김진)가 지난 1월 11일 우즈베키스탄의 2개 도시에 수동휠체어 150대, 전동휠체어 2대를 포함해 1300여개의 의료기구를 전달했다.

이번 휠체어 전달식은 제24차였으며 남가주 일대의 후원자들이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십시일반 돈을 모으면서 가능케 됐다.

선승민 기자

PCUSA 한미노회장 강일준 목사 취임



강일준 목사

지난 1월 8일 강일준 목사(한양장로교회 담임)가 미국장로교(PCUSA)에 소속된 한미노회의 노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강 목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과거의 일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자”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특별 찬양 시간에는 강 목사의 찬양 티모시 강(강정현) 군이 “하나님의 은혜”(신상우 작곡)를 연주해 그 지리의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강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장로교 내의 173개 노회, 그리고 4개 한미노회 중에서 장자노회로서 손색이 없는 성숙한 노회가 되기 위해 거듭나고 개혁하자”라고 역설했다.

선승민 기자

주님의교회 5주년... 교회 일꾼들 세워



주님의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를 세웠다.

하시엔다에 위치한 주님의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해 지난 15일 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며 안수집사와 권사 등 교회의 일꾼을 세웠다.

이날 예배에서는 담임 김병학 목사와 함께 신부식 목사, 황진기 목사, 차성구 목사, 박윤수 목사, 전진영 목사가 식순 및 임직자 안수를 맡았다. 신부식 목사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세워진 김신 안수집사, 이승행 안수집사, 김도보라 권사 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감당하기를 전 교인들 앞에서 서약했다. 이들은 5년간 제자훈련을 받고 6개월간 집중적인 임직자 교육을 받았다.

교회 측은 임직자들에게 진리를 상징하는 성경과 성경을 상징하는 알지마, 기도를 상징하는 방석 등을 선물했다.

김병학 담임목사는 “주님의교회는 지난 2007년 1월 14일 평양대 부흥 1백주년 기념주일에 창립된 교회로 이번에 5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고 밝혔다.

선승민 기자

MK들 찬양앨범 제작해 화제

선교사 자녀(MK)들이 드디어 일을 냈다. 선교지에서 부모와 함께 있다 미국으로 유학 와 대학을 졸업한 MK들 가운데 찬양에 은사가 있는 이들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MK찬양집회를 열어 왔다. 그러던 중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보다 폭넓게 사용

하자는 취지로 앨범을 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앨범을 위해 GP선교회와 엘리트학원, 세리토스장로교회 등이 적극 격려, 후원했다. 앨범 출시와 때를 맞추어 이들은 특별 찬양집회와 감사예배를 드린다. 1월 27일 저녁 6시에 세

리토스장로교회(11841 E.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에서 열리며 MK들을 위해 기도하고 음악을 나누고 싶은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MK 사역을 후원해 온 GP선교회의 미주대표 백운영 선교사는 “MK들의 영성과 음악성, 은사가 남가주 교계와 전세계에 귀히 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며 기대했다.

빅터 박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인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Since 1976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개/관

로고스선교회는 서부지역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남가주 지회를 아래와 같이 개관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 사무실 개관 기념예배

- 일 시: 2012년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설 교: 변영익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장 소: 3434 W. 6th Street,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 문 의: T. 213-384-3210 F. 213-384-3222

로고스선교회에서 하는 사역

크리스찬저널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문서선교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 세계 선교의 교량지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 민임을 위한 전도지
- 크리스찬의 교양지
- 진리서화의 대안지

www.kcj777.co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한국에서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MOU 체결)
- 일반 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 예수를 영접한 건강한 신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부터 64세까지)
- 일반의료보험회사가 아니며, 의료비 할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www.christianmutual.org

Logos House
RAMONA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으며 San Diego지역에 있습니다.

www.logoshouseramona.org

로고스선교회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T. 773-777-7779 | TF. 888-777-8226
 Logos Missions, Inc. www.logosmissions.com

Logos Missions Inc. L.A. Office (로고스선교회 남가주 지회)
 로고스선교회 대표 박도원 목사 / LA 지회장 크리스티나 정

협력단체: 대한보건산업진흥원, 대한기독교병원협회, 프라이م 솔루션, 한우리 여행사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3-11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셔서 교회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도리를 깨달아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의 자녀로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는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바울과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 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게도냐에 가서 볼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무슨 일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열심으로 협력하는 영적 성숙과 지욕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활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헌금으로 전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 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가르친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는 그 사랑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증거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약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얻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딸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시키기로 하고 그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 줍니다. 딸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신앙고백들을 아버지가 읽게 되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 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를 결성하고 전

도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댓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열매도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손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사막 같은 것으로 퍼부어 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부어 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만 사용되어야 선한 청지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풀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넛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ATS 인준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현 이민국에서는 R-1(종교비자), H-1B(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격을 연방정부 학력 인준 학교 기준에만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성령 운동의 주재이자 20세기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의 성장, 제자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깨어있나?'가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례 쉐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의성장,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역 간행과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권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개서로는 "깊은 생계를 자유아시는 하나님", "사적인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장을 미치고 있으며 연례 에페르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장으로 연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체계를 전도와 선교의 자연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서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는", "사업의 기쁨부음", "변역" 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당 및 입학문의
213-481-1313

아이티 어린이들 LA 순회합창 펼친다

마틴루터킹 퍼레이드와 한인교회에서 공연 일정

1월 12일은 아이티 지진 참사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진이 난 후 30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6만여 명이 장애를 입었으며 아직도 아이티 전역에 집을 잃은 150만여 명이 천막 속에서 열악한 생활을 견디며 살고 있다. 이곳의 어린이들이 미국을 방문해 아름다운 노래로 희망을 전한다.

세계문화스포츠재단(회장전동석), 마틴루터킹퍼레이드위원회(President Larry E. Grant), VIULA은 아이티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과 희망의 천사 합창단> 22명을 초청해 순회공연을 실시한다. 8-12세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이티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백삼숙 선교사(사랑의집)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13일 LA에 도착했다.

현재 13일 오후 8시 세계아가페선교회에서 공연, 16일 마틴루터 킹 퍼레이드에서 공연, 18일 오후 7시 30분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공연, 21일 오전 6시 30분 LA사랑의교회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티 어린이들의 LA 순회 공연 일정에 대해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13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LA 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아이티 어린이들이 LA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아이티 청소년 합창단 방문 및 공연은 세계아가페선교회, LA사랑의교회, 변영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LA경찰국, LA시, LA한인회, 미주한인사업가협회, 마틴루터킹퍼레이드위원회, 한

미동포재단, ABC TV, Carson시, 서울성모병원, CTS TV, LA동부한인회, 남가주호남향우회, Brookhurst Plaza Inn, Angels for Sight 등이 후원한다.

토마스 맹 기자

진실된 행함으로 지도자의 삶 살길

주님의영광교회, 13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드려



주님의영광교회가 34명의 교회 일꾼을 교회 창립 13주년에 세웠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가 교회창립 13주년 기념 및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를 15일 오후 4시 30분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장로 장립 5명, 장로 임명 2명, 장로 피택 7명, 안수집사 임명 10명, 권사 임명 10명 등 총 34명이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길 서약했다.

권면과 축사로 임직자들을 축복한 안동주 목사(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 부총회장)는 "여러분이

받은 기회는 축복받은 만하다"며 "야고보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실된 행함이다. 오늘 직분자들은 앞으로 야고보서를 곁에 두고 하나님과 성도, 자신 앞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 말씀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 총회장)가 전했다. 이서 목사(미주총회 부노회장)가 축도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이단 이렇게 판별하라

→ 1면으로부터

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 김관중 목사는 "다시 한번 이단과 관련해 경각심을 갖고 각자 속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회장 김성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며 "교회가 더욱 신앙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 회장 박해성 목사는 "이단교회 목회자의 목양방식이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일선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최측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자리에서 이단 판별 지침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남가주 기독교계가 밝힌 이단 판별 지침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고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이단이 아닌지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1.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경 이외의 계시를 주장하는 자.
2.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하며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자.
3. 어떤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자기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이고 구원이 있다고 하며 자기들의 조직 속에 추종자들을 예속시키며 재정적인 착취를 하고 교리가 혼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자신을 자기들의 집안으로 전도하려고 과잉 진절을 베푼다.
5. 정통교회나 목사의 비리 등을 들어 지나치게 비판하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 성도와 목사간의 이간질을 하는 자.
6.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는 자.
7. 성경공부를 하자며 소속 교회 밖의 특정 공간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

토마스 맹 기자

홀사모님들 힘내세요!!!



홀사모와 그 자녀를 미국에 초청하는 꿈망 사역이 은혜와 눈물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어머니 꿈망"이 제2기를 맞이해 16일부터 23일까지 애너하임 소재 브룩허스트 플라자호텔에서 12명의 홀사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역은 꿈망비전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정하나 사모(남가주광영교회)가 홀사모와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행사다.

정 사모는 "처음에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생일 선물을 챙겨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지금은 미국으로 홀사모 가정을 초청해 삶의 희망과 꿈을 주는 복된 일로 자라났다. 지난해 첫 행사를 통해 홀사모들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매달 함께 모이며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들을 돌보는 리더로 세워짐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강사는 변명혜 교수와 그레이스 리 전도사, 김선화 목사, 정하나 사모가 맡았다.

16일에서 18일까지는 상호관람과 LA여행사의 후원으로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다녀오고, 19일에서 21일까지는 호텔에서 특별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22일에는 남가주광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리우드와 한인타운을 관광한다.

23일에는 SonMinistry(김정환 목사) 감사학교에 참가하고 레돈도비치를 관광한 후 2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한 목사가 후원과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남가주광영교회(정우성 목사)와 무명의 다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

PHOTO NEWS



아이티 어린이들 첫 순회공연 흥겨운 리듬으로 청중들 참여 유도

"미국에 두번째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꿈과 희망의 천사 합창단>이 지난 13일 저녁에 LA에 도착해서 한인교회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8-12세로 구성된 합창단은 흥겨운 가락과 리듬으로 청중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어머니 꿈망과 비슷한 어린이 꿈망은 홀사모 자녀 중 초등 4학년에서 중3까지의 자녀들을 여름방학에 맞춰 미국에 한달여간 초청해 머물게 하며 새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올해 여름 또한 차례 계획되어 있다.

정 사모는 "이 행사에 참가했던 자녀 중 아버지를 잃고 실어증에 걸려 2년 반동안 말을 못하고 인생

을 포기했던 한 학생이 새 희망을 찾고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 한 학생은 서울시장배 전국영아웅변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빅터 박 기자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담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 정화원에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Lee University
 - ③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503-5330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7병을 100불에...

Citric Acid \$30/ea 1병은 2-3달분

매실의 3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구연산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성분: 구연산 100%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신속히 호전되게 만든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

구연산 복용 체험담



미주 한인 이민 109주년 “선교사들 기억하자”

남가주 교계 연합한 가운데 기념감사예배 드려

미주한인 이민 109주년,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박상원 장로) 주최로 11일 오후 7시 30분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에스더 4장 14~1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변영의 목사는 “젊은이들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한국을 잘 살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창대해 왔다. 이들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김영대 목사는 “올해는 미주한인 이민 109주년인 해로 동포 250만명에게 감격의 해가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축제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예배는 사회에 진유철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개회사에 임낙균 대회장(2012 미주한인의 날 대회장), 환영사에 박상원 총회장, 기도예배에 하기인 장로(남가주장로회 직전회장), 성경봉독에 정종일 목사(교협 서기), 특별찬양에 목사장로 부부찬양단, 설교에 변영의 목사, 축사에 김영대 목사, 격려사에 정시우 목사(미주한인재단 이사장), 특별기도에 이정현 목사(교협 부회장), 정요한 목사(목사회 부회장), 엄규서 목사(교협 부회장), 헌금 기도에 홍성관 목사(교협 회계), 헌금 특송에 황해경·김준만 교수, 광고에 박세현 목사(교협 총무), 축도에 박효우 목사(목사회 직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또 특별기도가 △조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미주한인 교계와 동포사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 세계의 경제회복이란 주제로 놓고 진행됐다.

토마스 맥 기자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한인의 날 기념감사예배가 성대히 열렸다.

OC에서도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 열려



OC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조찬예배로 기념감사예배가 있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주한인재단USA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 조찬예배가 1월 14일 오전 8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있었다.

이번 예배는 기도 콘서트 형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민경엽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가 맡았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오아론 목사(신학분과위원장)가, 이북의 안정과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를 오상철 목사(이민목회분과위원장)가 맡았다.

그리고, 차세대 정체성 회복과 신앙 계승을 위한 기도를 로버트 전 목사(차세대분과위원장)가 맡

아 다함께 뜨거운 기도로 조찬예배의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사회는 엄영민 목사(회장)가 맡았고, 박용덕 목사(중경회장)의 기도와 나침반교회 남성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남가주사랑의교회 선임목사 고석찬 목사의 “온 땅을 적시는 민족으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서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의 환영사와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와 강석희 열마인 시장의 축사로 예배가 마무리 되어 교계와 미주한인재단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빅터 박 기자

미주한인의 날 감사 멕시코 후손들과 함께

주님세운교회에서 성대히 개최

美 연방의회가 선포한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1회 주일 감사 예배가 주님세운교회에서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미주한인의 날은 한인의 문화와 정신을 주류사회에 알리고 한인 이민 선조가 미국에 공헌한 업적을 기려 한인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축제의 날이다.

〈파수꾼이여 그들에게 외치라(겔3:16~19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시우 목사(미주한인재단 LA 이사장)는 “파수꾼이 가져야 할 임무로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와 자유를 외치는 것”이라며 “사도 바울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중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다. 내 멍에를 하나님께 내 려놓고 주님의 평강의 파수꾼이 되

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환영사에서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는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해 드리는 이 예배는 법으로 정해진 우리의 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 개교회에서 첫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장로(한국 국회의원,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는 “참정권을 부여받은 해외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과 인터넷 투표를 확대하고 복수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등 세계 한인 교회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멕시코계 한인후손(에네



예배를 마친 후 다함께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켄)들이 참석해 헌금특송을 하기도 했다. 예네켄은 100여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예네켄 농장으로 약 1천명의 조선인이 건너 가면서 5~6대까지 이어진 후손들로 현재 멕시코, 쿠바, 과테말라 등에 3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예배는 사회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개회사에 임낙균 대

회장(2012 미주한인의 날 대회장), 기도예배에 빈센트 김 권사(2012 미주한인의 날 준비위원장), 성경봉독에 이대영 장로, 설교에 정시우 목사, 환영사에 박상원 장로, 간증에 김영진 장로, 헌금기도에 민재식 장로, 축도에 최학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맥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발휘하여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www.gstl.edu.com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1-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에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전문의료인이 되려면 장기간의 의학 수업이 필요하며 과다한 학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다양한 의학분야의 필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기 위해 의료선교사 육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신청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있는 남녀

- 모집대상 :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를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모집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함)
Orange County 지역 : 남녀 10명

교육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 2012년 1월 31일

개강일자 : 2012년 2월 5일

교육장소 :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부활교회(아리랑 마켓 뒤)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내용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교정학 : 각종 통증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 자연식요법 (난치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의 수기치료 교육은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 전문 치료를 종합 교육하므로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의료선교사 육성 교육 기관입니다. 손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 능력의 은사와 동일합니다.

수료 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Solution for Tomorrow



Telex SM-2 Telex SM-21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통역기 세트 (4인 기준)
 Call for Price

Superlux hd661/헤드셋 헤드폰
 \$49.00

Audio-Technica ATW-252 무선 마이크 시스템
 \$99.95

Sound Art XP-900 Potable Powered Mixer
 900watts (450W+450W / 10CH input)
 \$450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예배 6:20

갈릴리산교회
하나님이주신신앙행복한교회마리키아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침례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시편받고 사랑받는 교회찬양과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저녁기도회 오후 7:00 (월-목)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강증형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주일학교 오전 11:00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박용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미침례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에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쳐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8: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재림이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라카르리스티아(내가 크리스천이다), 허남은영광입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에수를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리스트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기위해의 가치를 보아야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거리에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 (714)995-0169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EM)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한중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월일예배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 오후 7:30 (매월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472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시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90006
T. (213) 245-4090

염규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예배(EM)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월셔크리스천교회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384-4272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효롭, 소 친 초 정신의 효롭, 바른교회인의 효롭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심술) 수요예배 오후 7:45
오후 12:3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i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박세록 담임목사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감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NIV 최신판, 동성애 '죄'로 더 부각시켜

관련 성구 번역시 동성애 부분 명확히 기술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 최신판(2011)이 예전 버전(1984)보다 동성애 행위를 한층 강력하게 죄로 표현하고 있다고 NIV 성경을 제작한 성경번역위원회(The Committee on Bible Translation) 위원장 더글라스 무(Moo) 박사가 밝혔다. 무 박사는 저명한 복음주의 신약학자로 현재 미 휘튼칼리지 교수로 있다.

무 박사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둘러싸고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관련 성경 본문과 어휘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상당히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관심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 NIV는 동성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몇 가지 예를 들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1984년에 개정출간된 NIV는 이 구절에서 'homosexual offenders'(동성애를 범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신판에서는 'men who have sex with men'(남자와 성관계 하는 남자)라고 바뀌었다.

무 박사는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남성동성애 행위에 있어서 각각 소극적이고(passive) 적극적인(active) 참여자

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1984년 번역은 동성애가 그 자체로 정죄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불쾌한'(offensive) 동성애 행위만 정죄되는지가 불분명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NIV는(고린도전서 6장 9절의) 그리스어 단어들에 모든 종류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다. 또 핵심적인 그리스어 단어가 남성과 관련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무 박사는 로마서 1장 26-27절과 레위기 18장 22절 역시 학문적 연구 결과와 해당 구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번역했다고 밝혔다.

로마서 1장 26절의 구절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은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로 바뀌었다. '자연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natural relations'에 'sexual'(성적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연적인 성관계를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해석되게 함으로써, 해당 구절이 '여성 동성애 행위'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NIV 성경은 동성애 문제를 분명한 죄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레위기 18장 22절의 구절 'Do not lie with a man as one lies with a woman'(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으로 바뀌었다. '성관계(sexual relations)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남성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변화를 많이 준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이다. '이상성욕자'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구절의 'perverts'라는 단어가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동성애

적 행위를 하는 자)라고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무 박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핵심 그리스어 단어가 이 구절에도 나타난다. 이 구절에 변화를 준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유하고 있다. 1978년에 첫 발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30억부 이상 팔렸다.

이지수 기자

미국 보수 복음주의 리크 샌토럼 공식 지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연설 중인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rick santorum.com

미국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공화당 경선에서 리크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을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150명의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지난 주말 텍사스에서 가진 모임 끝에 그들의 지지를 샌토럼에게 모으기로 결의했다.

14일 이들 그룹의 대변인인 패 밀리리시지카운슬(FRC) 회장 토니 퍼킨스 목사는 "우리 보수 복음주의자 그룹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서 샌토럼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며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샌토럼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슈들에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점을 높이 사지만 그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도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들 그룹은 오는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위해 샌토럼 진영에 자원 봉사자 파견과 재정적 후원 등 적극적 지지 활동을 개시했다.

한편 이 모임은 각자가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투표 이후 선택된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다는 전체 하에 개최됐다. 이는 보수 복음주의권 내 표의 결집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화당 경선은 보수 복음주의권 내 지지가 여러 후보에게로 분산된 가운데 높은 당 내 지지율 기반으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연승을 거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 선출 가능성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에 계속되는 지지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복음주의권은 올해 대선에서 최우선으로 할 목표로 바락 오바마 정부의 종식을 꿈꾸면서도 물론교인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부딪혀 왔다.

이날 롬니를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퍼킨스 목사는 "우리는 반(反)롬니 그룹으로서 모인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도 많은 협력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번 모임은 오바마에 맞설 뿐 아니라 롬니에 맞설 경쟁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제 보수 복음주의권이 샌토럼에 대한 지지를 복음주의 내에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그가 향후 롬니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샌토럼은 이같은 지지를 받은 이후 첫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과의 공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주최 조찬기도에 15일 참석해 연설하며, "15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모여 나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축복받았음을 느낀다. 큰 지지 앞에 겸손해진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지지의 획득에 오랜 시간 심취해 있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보수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나아가기 원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아침 나의 의문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투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후보를 선택하게 내버려 둘지 바로 그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이 그들의 신념을 타협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다. 그리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며 "이제 미국과 전세계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해 일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조찬기회에 이어서 진행된 FFC의 오후 행사에는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인 뉴트 김리치, 릭 페리, 미트 롬니, 론 폴도 참석해 연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FFC 행사는 오는 21일 세번째 경선이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렸다. 랠프 리드에 의해 창립된 FFC는 기독교적 정치 구현을 위한 풀뿌리 보수 기독교 운동 단체이다.

순헌정 기자

기독교자유민주당

지지율 13% 육박...

국회 입성 가시화되나

여론조사 결과 기독교자유민주당 지지율이 13%에 육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S&P 리서치는 전국 1,516명을 대상으로 4·11 총선을 앞두고 기민당 창당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알고 있고 창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12.6%에 달했다. '알고 있지만 창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49.8%였다. 62.4%가 창당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6%였다.

창당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우리가 창당 일선으로 종북적결, 반국가·반사회 세력 격결을 내세운 것이 상당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기존 정당들에 실망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알고 있고 창당을 지지한다'는 대답이 17.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2.0%, 40대 11.7%, 50대 11.6%, 10~20대 10.6% 순이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와 주체사상 이렇게 닮았지만...

김일성 외조부는 장로, 외고조부는 목사, 부모는 독실한 신자

김일성대를 졸업한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RFA(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 통치체제는 기독교와 어떻게 그리도 흡사한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털어 놓았다.

주 씨는 "제일 다른 점이라면, 기독교는 벌써 2천년 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수령님, 장군님을 무조건 믿어야 하고 이제는 김정은이란 새로운 신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안 믿는다면 총살해 버리니 겉으로만 보면 기독교 이상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슷한 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독교에서 가장 구속력이 강한 십계명을 북한의 유일신상체제 확립 10대 원칙과 비교하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실질적인 법"이라고 했다. 기독교의 주기도문은 북한에서 명절이 끝나면 의무는 '선서'와 대칭됐다. 성탄절을 본만 '태양절'도 있다.

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는

매주 선전실 등에 모여 하는 생활총화다.

예배에 가서 드리는 회개기도는 생활총화 시간에 비서 앞에서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받는 것과 같다.

설교는 목사 역할의 당 비서가 주관하는 당 정책 등의 학습으로, 설교에 앞서 읽는 성경구절은 당 비서가 회의에 앞서 인용하는 교시 말씀으로 탈바꿈됐다. 회의 전 '김일성 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노래', 회의 후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같은 일종의 찬송가도 존재한다.

북한 체제가 기독교 방식을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을 알아야 한다"며 "반석은 베드로에서 따온 기



주성하 기자

독교 이름이고, 강반석의 아버지 강돈옥은 칠골교회 장로, 할아버지 강광은 목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집안이 기독교이니 그 체제를 교묘하게 본딴 북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교'는 세계 10대 종교가 됐다.

아버지 김형직은 평양 장대제교회에서 설립한 신학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숭실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1백년 전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장대제(장대현)교회는 지금 동상과 소년공전이 있는 만수대에 있었다.

주 씨는 "만수대 동상 앞에서 김정일이 죽었다고 장군님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 자리가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리였으니 참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이 되면 평양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생겨날텐데, 수령님 장군님 하던 평양 시민들이 교회에서 주어 주어 하며 기도할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부흥의 최대 걸림돌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한 가장 큰 걸림돌이면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노라 보면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동행하기에는 너무도 싫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적이 질병, 약화된 재정난, 깨어진 인간 관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부흥의 걸림돌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림돌이 부흥의 추진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외부적 요소가 부흥의 걸림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핍박, 환란, 부실한 재정, 육체적 질병이 부흥의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외부적 요소들은 오히려 부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 보면 부흥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난적은 오히려 내부적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감, 무관심, 비판적 사고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을 방해하는 최대 저항군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행기 기체가 공기의 저항을 감당해 내며 최대 출력을 만들어 순항한다 할지라도 미숙한 조종이 비행기를 추락하도록 만들 수 있듯 말입니다.

그렇기에 부흥을 위해서는 늘 자신을 잘 돌아 보아야 합니다. 외부적 저항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내부적 저항입니다. 부흥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됨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행기의 최대 적은 공기라고 합니다. 그 공기의 저항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비행기는 고도를 높입니다.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밀도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최고 고도를 3만5천 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약 1만 미터의 높이로 잡는다고 합니다.

왜 비행기는 그 이상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이상을 올라가면 공기가 더욱 얇아져서 그만큼 공기의 저항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날기 수월해질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무작정 고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공기를 흡입하여 그것을 엔진에서 연료와 함께 압축한 후 다시 연소시키며 폭발시켜 나오는 힘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도를 올려감에 따라 공기가 얇아져서 공기 저항력은 줄어들어 좋지만,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얇아진 공기를 엔진에 압축시켜도 연소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한계점 고도가 바로 1만 미터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공기라는 것은 비행기가 운항을 하기 위



김한요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벽 3시에 알람 시계가 울린다. 5분 전에 잔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나는 느낌이 든다.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며 허리를 돌리고,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세수를 끝내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아이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가방과 지갑을 챙기고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91번 프리웨이를 달린다.

매일 똑같이 시작되는 일상사인데, 조금 일찍 시작하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과 의 일대일 만남이 기도의 본질임에도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본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별관까지 가득한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나에게 색다른 은혜를 부여 주시는 듯하다.

나 한 사람이 교회임에도, 나만

은 교회가 아님을 느낀다. 같이 있어야 나도 교회이고, 내 옆에 사람도 교회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아무래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된다. 혼자 기도하기가 때론 힘들었는데, 본당을 들어 가면서 어디서 오는지 에너지가 팍팍 느껴진다. 입구에서부터, 복도가 비좁을 정도로 높은 보조 의자들 사이를 뚫고 앞자리까지 걸어가 앉아 있으면, 내 뒤에 가득 앉은 성도님들이 내 등에 대고 힘내시라고 소리치는 같다.

함께 찬양하고, 일사불란하게 박수치며 주를 찬양하면 일찍 일어나 조금 빠른 피곤함이 한방에 날아가고, 기도의 집중력을 얻게 된다.

찬양대의 특별찬양은 스캇 조명을 받은 듯,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하는 듯, 하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다. 하늘의 메시지가 선

포되고, 시간마다 강단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무릎 꿇는 헌신자들의 모습은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 서는 상징이다. 헌신자들의 기도가 더 좋은 교회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막내 딸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요구한다. "아빠, 내일도 깨워주세요." 어린 녀석이 무엇을 알랴는, 아니 분명히 아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길이 아찔마다 기도를 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 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다. 신년특새를 통해 더진 기도의 물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새해의 계획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박종길 목사
열바인문누리교회

우리의 치욕을 지고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65년 4월, 존 윌크스 부스는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 칸막이 처진 곳으로 숨어들어 에이브러햄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동생의 변행이 부끄러워 직장을 내려놓고 도망가듯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무리에서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에드윈은 즉각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 올려 살려 냈습니다. 몇 주 후 에드윈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는 이 편지를 죽는 날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편지는 윌리엄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에덤스 부도 장군에게서 온 것으로 미국의 영웅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두 형제 중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열정도 같지만 한 사람은 삶을 택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살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양과 염소, 반석 위에 지

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삶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13:13, 개정)

우리는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치욕을 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과 치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영광이나 화려함이 영문 밖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십자가와 치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에 좋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도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분들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감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낯선 언어와 문화와 음식 속에서 복을 위해서 치욕을 두려워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보여 줍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수한 선택 속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골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치욕을 지고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십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치욕을 두려워 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과 고난받기를 잠시 좌악의 낙을 누리려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나아가십시오. 화려함과 인기와 쾌락의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나의 영광에서 십자가로 전환하십시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제 32대 남가주 호남 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설날 2012 대잔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에 향우들과 동포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설잔치를 벌입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월 20일(금)
 6:00~6:30 PM Tea Time
 제 1부 : 6:30~7:15 PM 회장단 이취임식
 제31대 이임회장 이상훈
 제32대 신임회장 정인기
 제 2부 : 7:15~7:45 PM 설날 잔치
 7:45 PM~ 아이티 학생 공연, 사물놀이
 유명 가수 공연 (사회:김막동)

장소: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준비위원장 David Lee (213) 380-5500



남가주 호남 향우회

Honam Friendship Foundation of Southern California

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 없이는 나라가 설수 없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중에서

우리는 호남인임을 자랑스럽다.
 우리는 호남인의 역사적 전통을 높이 평가하며,
 독립전쟁, 광복전쟁의 거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는 호남정신인용을 각시 확증한다.
 우리는 호남인으로서 국가의 현충일을 모면함은 의의
 호남정신인용 계승발현함과 민족정신인용의
 조국의 국가발전의 기여를 자한다.
 우리는 호남정신인용의 전통을 계승발전함과
 민족정신인용의 전통을 계승발전함과 민족정신인용의
 전통을 계승발전함과 민족정신인용의 전통을 계승발전함과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영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해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일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경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학수업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Gondolas

(323) 855-5687 / (213) 200-3050 / (213) 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말 예산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골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최고가 현금매입

금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 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 877-580-2424 |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JJ 플러밍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반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역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루,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영어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SAS Afterschool

- Math
- English
- E.S.L
- Writing
- Bookclub

Pick up, 건강한 집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785.2427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둔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디스크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 그가 손을 대면 낫는다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복음 전하는 의사 박승부 장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손'을 주셨고 이 사람은 입이 아닌 손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박승부 장로는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 현재 LA에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World Medical Missionary Education Foundation)을 설립해 손으로 복음을 전할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박승부 장로

수기치료는 약이나 의약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각종 디스크는 물론 성인병,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편두통 및 대부분의 통증이 치료 가능하다. 척추교정, 골반교정도 가능하다.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열핏 듣기에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20년간 이 길을 걸은 박 장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주신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로는 한의사이며 카이로프랙티시지만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에만 의지해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한국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근육 치료를 선수촌에서 했으며 대기업에서 건강 강의를 했다. 40여개국을 순방하며 건강 강좌를 열었다.

2008년 은퇴하며 도미한 그는 자신의 달란트인 수기치료가 선교지에서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선교지 국가의 의료법에 제한도 받지 않기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이 전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법을 배우는 데에도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는 이미 미주에서 국제대체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해 수기치료를 양성한 경험이 있기에 LA에서는 이 치료법을 선교와 연결시키는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을 설립해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미 1기 20여명이 배출돼 세계선교에 수기치료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근육을 주무르고 꺾고 펴고 돌리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탄성을 내지르곤 한다.

박 장로는 "타국 선교는 물론 LA 내 타 커뮤니티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현재 박 장로는 LA와 OC에서 20주간 과정의 수강생을 소수정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근육교정학, 체형교정학, 척추교정학, 영양물리학 등 이론과 실재를 통해 의료선교사를 양성한다.

이 과정을 수료할 시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해외 파송시 후원 혜택이 있다.

한편, 박 장로는 LA 한인타운 내(2836 W. 8th Los Angeles, CA90005, 213-381-7273) 사무실에서 실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은 후, 자유롭게 헌금을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누구나 가능해"
세계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자



박승부 장로는 손을 이용해 고혈압 내지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



박승부 장로와 함께한 선교대원들. 박 장로로부터 수기치료를 배운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이를 유용하게 사용했다.

선교지 전통 속에서 복음 전파할 키를 찾아

베데스다대학교 김만태 교수 책 발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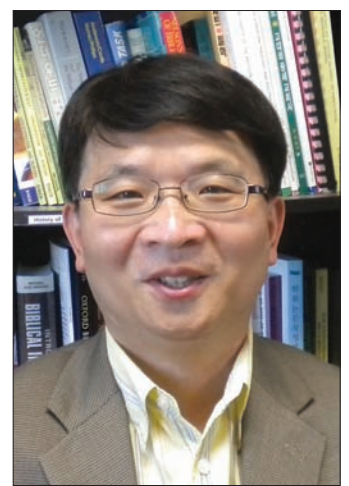
부정적인 미신 의식과 긍정적인 사회 가치가 수백년동안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았을 경우 이를 대하는 선교지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버리거나 취하거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기독교적 승화"라는 답을 한인 선교학자가 내어 놓았다.

베데스다대학교의 김만태 교수는 최근 "The Puberty Ritual in Sri Lanka: A Comparative Exploration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between Sinhalese Buddhists and Christians"라는 책을 통해 이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스리랑카의 성년식: 신타라족 불교도와 기독교인의 의식 및 태도 비교연구"로 학술 전문 출판사인 피터링(PETER LANG)에 의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에서 동시 출판됐다.

김 교수는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 중 겪은 문화적 이슈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김 교수는 불교도 마을에서 영아 학교를 운영하던 중 13살된 여학생이 2주를 결석하자 이 여학생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여학생을 만나게 해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학생이 성년식 기간 중이므로 어떤 남자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소녀는 일주일째 집 안의 한 방에 머물고 있었다. "왜 이토록 성년식이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기독교인들도 이 성년식을 접해볼 수 있는가?"라는 마음 속의 질문으로부터 김 교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인도 밑에 위치한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약 450년간 받고 1948년에 독립하였다. 곧 450여년간의 가톨릭 선교와 개신교 선교를 겪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인구는 현재 전 인구의 1%가 채 안된다.

이 책은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동안의 선교가 스리랑카인들의 문화를 반기독교적이라 하여 금지시켰고, 반면 스리랑카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배척하는 서양의 종교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스리랑카의 성년식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점술과 같은 민간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내면에는 아이에서 성인이 된다는 자기 정체성,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적 관계의 강화,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베데스다대학교의 김만태 교수

김 교수는 민간종교적 요소가 비기독교적인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성년식 자체를 금지시키면 스리랑카인들에게 중요하면서 성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까지 금지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피력한다.

스리랑카는 불교가 70%, 힌두교가 15%, 회교가 7%이다. 타종교인들은 교회에 오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하지만, 성년식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으로 여기고 친족들과 이웃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참석한다. 이 책은 이 성년식을 성경적으로 승화하여 타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장으로 삼고, 동시에 기독교를 스리랑카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배척하는 종교가 아니라 존중하는 종교로 재인식하게 하여 복음이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현재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스탠포드, 에모리 대학 등 미국 내 주요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amazon.com과 barnesandnobles.com, peterlang.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저자 김만태 교수는 연세대 영문학 과(B.A.), 한세대 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교(Th.M., Ph.D.)를 졸업하고 현재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 소재한 베데스다대학교에서 교무처장 및 목회학 박사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다. 선교학 관련 주요 논문을 미국의 주요 저널과 학회에 근래에 두 번 발표한 바 있으며, 출간된 번역서로는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CLC), "타문화사역과 리더십"(CLC)이 있고 현재는 "세계선교학 사전"의 번역 책임 감수를 맡고 있다.

김준형 기자

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종교일보/인재형 웹사이트www.yono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Comcas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 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플랜	iTalkBB \$24.99	Comcast \$49.99	Verizon \$49.99
미국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 전화	무제한	추가요금	불포함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포함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포함	불가능
별도 부가금(세금 등)	없음	있음	있음
15개월 총금액	\$374.85	\$749.85+별도 부가금	\$749.85+별도 부가금
프로모션	3개월 무료	없음	없음

1.800.872.2902 [디지털 시대 우리진 전화]

아이토크비비 30% [환불 보장]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플랜 또는 글로벌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무료가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예치시 위약금(\$69.99)과 보상 받으면서 총 금액 합산 부과 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약관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안번호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치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통화 2인 2인에게는 견제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 신청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를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타운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번호: **703,349,7544**
(휴무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H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2012 임진년 새해에는
고객님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 하시길
저희 임직원 모두 소원합니다.
800대를 수용하는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2012 NEW GENESIS



2012 NEW EQUUS



에쿠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딜러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예약 : 제니김



General Manager
웨이 워터스



Sales Manager
저스틴 길



Fleet Manager
찰리 정



Sales
케빈 김



Sales
맥스 정



Sales
스티브 장



Customer Care
제니 김

현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펜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이자율
2.49%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H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2012 NEW MAZDA3 ZOOM-ZOOM



New 2011 MAZDA Miatas VIN:215474
MSRP \$29,655
MPH Discount* \$5,157
Mazda Loyalty Rebate** \$500



*Dealer participation in lieu of 0% APR Financing.
**Must have Mazda currently registered at same address

SPECIAL RATE 0%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